金元時代 運氣學의 歷史

尹暢烈[1] *

金元時代運氣學的歷史

Yun Chang-Yeol[1] *
[1]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宋代可謂是運氣學得以普遍化和一般化的時代。在此基礎上，到了金元時代便出現了傑出的運氣大家劉完素，還有張元素、張子和以及劉完素的弟子馬宗素等人，共同發展了運氣理論，並將之積極活用於臨床。著者在本文中，針對金元時代醫家們對運氣學的推動發展及在臨床中的活用進行了綜合考察，以闡明金元時代運氣學的發展變化及其成就。

Methods : 對金元時代醫家的著述中涉及運氣學的相關內容進行了考察，包括劉完素、張元素、張子和，還對相傳爲成無己所著述的「圖解運氣圖」進行了考察。

Results : 劉完素著述的『內經運氣要旨論』由其高徒馬宗素進行了補充，較之宋代劉溫舒的『素問入式運氣論奧』更为體系、更爲精詳。劉完素在『素問玄機原病式』中，將病因和病機歸納爲五運主病和六氣爲病，尤其用亢害承制論對諸多病機進行了闡釋。他還在『三消論』中獨創性地提出了“肺本淸，虛則溫； 心本熱， 虛則寒； 肝木溫， 虛則淸； 脾本濕， 虛則燥； 腎本寒， 虛則熱。”的學術見解。在『傷寒直格』中，他还記述了伴隨主氣六步的六種脈象。而張元素，則將運氣理論活用於臨床處方與用藥上，張子和則論述了隨主氣六步多發的疾病與治法，還編寫了標本運氣歌、辨十二經水火分治法、運氣歌等，對後世影響頗大。

Conclusions : 在金元時代醫家中，對運氣學說有所發展並將之用於臨床的代表醫家當首推劉完素，而張元素與張子和等人對運氣學說的活用也可謂範圍廣泛。另外，相傳是成無己所著述的「圖解運氣圖」，據考確非成無己之作，其運氣圖的著者很有可能是『傷寒鈐法』的著者，或其後的人物。

Key Words : 運氣學說, 劉完素, 張元素, 張子和, 圖解運氣圖, 馬宗素

Ⅰ. 序 論

북송의 仁宗 때 많은 의서를 校定할 때 王氷이 注한 『黃帝內經素問』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新校正을 가하였고 뒤이어 劉溫舒가 『素問入式運氣論奧』를 지었으며 運氣의 내용을 의사고시에 포함시켜 북송시대는 運氣學說이 일반화되고 보편화 된 시대였다. 이 시대를 이어 金元時代가 전개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儒之門戶는 分於宋하고 醫之門戶는 分於金元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이는 金元四大家의 出現과 관련이 있는데 金元시대에는 劉完素,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 등의 금원사대가 외에도 成無己, 張元素, 羅天益, 王好古 등의 걸출한 의가들이 출현하여 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金元四大家의 첫 번째 인물은 劉完素이다. 그는 누구보다 運氣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의학의 이론과 임상을 한차원 높이였으며 수많은 저술을 남겨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운기학의 대가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운기학설의 응용이 의학이 분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운기와 관련된 가장 큰 업적은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co.kr Tel : 042-280-2601
투고일 : 2016년07월08일 수정일 : 2016년07월22일
게재일 : 2016년08월04일

오운육기로 病機를 歸納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여 張元素, 張子和, 유완소의 제자인 馬宗素 등도 운기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장원소의 운기 관련 업적은 오운육기이론으로 처방용약 하였고 이동원, 왕호고 등이 이를 계승 발전시켜 本草之學이 自此一變하게 된다. 따라서 금원시대 운기학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금원시대에 나온 의서를 중심으로 그 속에 포함된 운기내용을 발췌하여 금원시대 운기학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동원, 주단계 등도 운기의 영향을 받고 임상에 활용하였지만 그들의 저서에 특징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유완소의 저서 6種을 중심으로 운기관련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어 장원소의 『醫學啓源』, 장자화의 『儒門事親』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成無己의 저작으로 알려진 「圖解運氣圖」의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지금은 亡失되어 전해오지는 않지만 금원시대에 저술된 운기 전문서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술의 방식은 관련된 원문을 현토하여 인용하고 괄호 안에 번역을 추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Ⅱ. 各家의 運氣活用

1) 劉完素

유완소는 금원사대가의 첫 번째 의가로 운기학설을 적극적으로 신봉하고 임상에 활용하여 운기학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운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內經運氣要旨論

이 책은 유완소가 전문적으로 운기의 정밀한 뜻을 闡發한 대표서적으로 『素問』 7篇大論과 『天元玉冊』 등의 내용을 發揮한 운기방면의 뛰어난 저작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이 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널리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中國醫籍考』에서는 "[劉氏完素內經運氣要旨論] 舊作素問要旨. 今據原病式訂正. 國史經籍志八卷 世善堂書目 作 一卷 未見"[1]이라 하고 『原病式』의 서문을 실어놓았다. 이로 보면 丹波元胤도 의적고가 쓰여진 1826년까지 본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國醫籍通考』에서는 『中國醫籍考』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按"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2].

"본서는 볼 수가 없어서 亡失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지금 淸나라 때 필사한 『圖解素問要旨論』 8권이 보존되어 있는데 完素가 짓고 그의 高弟인 馬宗素가 重編했으며 전적으로 運氣의 常變을 논술했다. 본서는 과거에 『素問要旨』라 했으니 淸나라 필사본과 명칭이 비슷하고 卷數는 1권과 8권의 차이가 있으나 『국사경적지』에서 본서가 8卷이라 했으니 청나라 필사본과 일치한다. 두 책이 같은 책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만약 같은 책이라면 完素의 遺著가 천지 속에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 책은 亡失되었다가 최근에 발견되어 인쇄되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素問玄機原病式』의 自序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悲夫라. 世俗或以謂運氣不徵하야 而爲惑人之妄說者라하며 或但言運氣爲大道玄機니 若非生而知之면 則莫能學之者하니 由是로 學者寡而知者鮮이라. 設有攻其本經이라도 而復有注說雕寫之誤也오 況乎造化玄奧之理는 未有比物立象하야 以詳說者也라. 僕雖不侮이나 以其志慕玆道하야 而究之已久에 略得其意라. 惜乎라 天下尙有未若僕之知者라. 據乎所見하고 而輒伸短識호대 本乎三墳之聖經하고 兼以衆賢之妙論하야 編集運氣要妙之說하야 十萬餘言 九篇三部를 勒成一

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092, 1983.
2)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p.1461, 1993.

部하고 命曰『內經運氣要旨論』하야 備見聖賢之妙用이라(슬프다. 세속에서 혹자는 운기는 증거가 없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망령된 말이라고 이르는 자가 있고 혹자는 단지 운기는 대도를 담고 있는 현묘한 기틀이니 생이지지한 자가 아니면 능히 배울 수 없다고 이르니 이로 말미암아 배우는 자가 적고 아는 자가 드물다. 설령 내경을 공부하더라도 다시 주석을 잘못 달고 잘못 새기고 쓴 것이 있다. 하물며 조화의 현묘한 이치는 사물을 비교하고 추상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내가 비록 총명하지 못하나 이 도에 뜻을 두고 사모하여 오랫동안 연구함에 대략적으로 그 뜻을 얻었다. 안타깝도다. 천하에 아직 나처럼 운기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본 바에 의거하고 문득 짧은 식견을 펴되 삼분지서에 근본을 두고 여러 현인들의 깊은 이론을 겸하여 운기의 요점되고 깊은 학설을 편집하여 10만여 글자 9편 3부를 한질의 책으로 만들고 『내경운기요지론』이라 명명하여 성현들의 오묘한 내용을 구비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3].

위의 내용은 『素問玄機原病式』 서문에 있고 뒤에 이어서 『宣明論方』을 기술하고 있으니 아마 그의 저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책인 듯하다.

또 自序를 보면 "3卷으로 나누고 九篇으로 서술하여 1部를 만들어 『內經運氣要旨論』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깊은 뜻을 밝혔다"[4]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책은 8권으로 되어 있고 [新添]과 [舊經]으로 내용을 나누고 있고 총 36圖의 그림이 실려 있다. 유완소의 제자 馬宗素가 쓴 서문을 보면 "釋《要旨》九篇하야 分作八卷하야 入式運氣하고 載設圖輪하야 明五運六氣의 主客勝負와 太過不及과 淫邪反正하고 重釋《天元玉冊》《金匱靈文》 《素問》《靈樞》하야 撮其隱奧運氣之旨也라(『내경운기요지론』 9편을 해석하여 8권으로 나누어 운기의 법칙을 집어넣고 그림을 실어 오운육기의 주기객기 승부와 태과불급과 淫邪反正을 밝히고 다시 『천원옥책』『금궤영문』『소문』『영추』를 해석하여 숨겨지고 깊은 운기의 내용을 뽑았다)"[5] 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新添은 馬宗素가 추가한 내용이고 舊經은 유완소의 원문인 듯하며 圖表도 마종소가 많이 추가한 듯 하다.

이 책은 운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술한 서적으로 북송 때 나온 유온서의 『素問入式運氣論奧』보다 더욱 체계적이며 상세하다. 내용은 主運, 客運, 六氣司天, 司地, 天符, 歲會, 正化對化, 交司日時, 九宮, 六化變用, 標本, 傳病, 抑佛鬱發, 勝復, 用藥, 六步氣候變用, 南政北政 등 운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2) 黃帝素問宣明論方

이 책은 모두 15卷으로 되어 있고 주된 내용이 病證과 處方으로 되어 있어 運氣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소문현기원병식』의 서문에서 "乃爲對病臨時處方之法하야는 猶恐後學未精貫者가 或難施用이라 復宗仲景之書하고 卒參聖賢之說하며 推夫運氣造化自然之理하야·····目曰 《醫方精要宣明論》이라(병에 대해서 그때에 처방하는 법을 위해서는 오히려 후학들이 정묘하게 관통하지 않은 자가 더러 베풀어 쓰기가 어려울까 두려워한지라. 다시 중경의 책을 근본으로 삼고 성현의 논설을 참고하였으며 운기의 조화자연의 이치를 추리하여·····제목을 『의방정요선명론』이라 하였다)"[6] 라고 하였고 馬宗素의 『運氣要旨論』 서문에서도 "宣明論者는 精要醫方이니 五運六氣用藥하고 古往宜禁하야 運奧妙旨가 莫越于此也라(『선명론방』은 의방의 정밀한 것을 모은 것이니 오운육기에 따라 약을 쓰고 지나간 과거의 것을 현재에 맞게[禁을 今으로 해석

3)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4, 2006.
4)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95, 2006.
5)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93, 2006.
6)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4, 2006.

하였다]하여 깊고 오묘한 뜻을 운용한 것이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7]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이론과 처방의 근저에는 오운육기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3)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玄機原病式』은 『原病式』이라고도 간칭하는데 金 世宗 大定 26年(1186년)에 편찬되었다. 이 책은 病因과 病機를 중점적으로 闡述한 著作으로 原病式이란 말은 "모든 병의 근원을 밝히는 法式"이란 뜻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易敎는 體乎五行八卦하고 儒敎는 在乎三綱五常하며 醫敎는 要乎五運六氣라(주역의 가르침은 오행팔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유교는 삼강오륜이 있고 의학의 가르침은 오운육기가 요점이다)"[8] 라고 하여 오운육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又云 治不法天之紀하고 地之理면 則災害至矣라 又云 不知年之所加와 氣之興衰와 虛實之所起면 不可以爲工矣라 由是觀之컨대 則不知運氣而求醫無失者는 鮮矣라(치료에 天地의 이치를 본받지 아니하면 재해가 이른다고 했고 또 이르기를 그 해의 운기와 기화의 성쇠와 허실이 생겨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운기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9]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夫別醫之得失者는 但以類推運氣造化之理면 而明可知矣라(대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구별하는 것은 단지 운기 조화의 이치를 유추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10]라 하였고, "且運氣者는 得于道同하니 蓋明大道之一也라. 觀夫醫者는 唯以別陰陽虛實로 最爲樞要오 識病之法은 以其病氣를 歸于五運六氣之化면 明可見矣라(또한 운기는 道와 同一하게 터득하는 것이니 대개 대도를 밝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살피건대 의사는 오직 음양허실을 구별하는 것으로 가장 요점을 삼아야만 하고 병을 인식하는 방법은 病氣를 오운육기의 변화에 귀납시키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11]라고 하였다. 이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用藥을 하는 핵심은 病機의 陰陽虛實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病機를 오운육기로 귀납시키게 되면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原病式』의 서술방법은 『內經』에 있는 병의 條目에 따라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素問·至眞要大論』에 있는 病機를 강령으로 삼고 있다. 五運과 六氣를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의 2부류로 크게 나누었고 五運主病은 諸風掉眩 皆屬肝木, 諸痛痒瘡瘍 皆屬心火, 諸濕腫滿 皆屬脾土, 諸氣膹郁病痿 皆屬肺金, 諸寒收引 皆屬腎水의 5臟의 病機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六氣爲病은 風, 熱, 濕, 火, 燥, 寒으로 나누어 먼저 강령이 되는 病機를 서술하고 여기에 소속된 병증을 나열, 설명하였는데 風類 1종, 熱類 34종(세분하면 37종), 濕類 8종, 火類 22종(세분하면 23종), 燥類 3종, 寒類 9종 등 모두 77종류(세분하면 81종)를 기술하여 熱과 火가 56종(세분한 것으로는 81종 중 60종)을 차지하여 후인들이 그를 火熱論者라고 일컫고 있다. 그리고 燥類의 "諸澀枯涸과 乾勁皴揭는 皆屬于燥라"는 提綱은 그가 창작하여 집어넣은 것인데 그는 병기 19조 중의 176字를 277字로 늘려서 綱領으로 삼았다.

이 책은 특히 亢害承制論을 가지고 病機를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문에서는 "由未知陰陽變化之道하니 所謂木極似金하며 金極似火하며 火極似水하며 水極似土하며 土極似木者也라. 故로 經曰 亢則害 承乃制라하니 謂己亢過極하면 則反似勝己之化也라. 俗未之知하고 認似作是하야 以陽爲陰하니 失其意也라(음양 변화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으니 이른바 木이 극한상태가 되면 金과 비슷해지고, 金이 극한상태가 되면 火와 비슷해지고, 火가 극한상태가 되면 水와 비슷해지고, 水가 극한상태가 되면 土와 비

7)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93, 2006.
8)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2, 2006.
9)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2, 2006.
10)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4, 2006.
11)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4, 2006.

슷해지고, 土가 극한상태가 되면 木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경에서 '亢盛해서 만물을 해치면 아래에서 계승하던 기운이 그것을 제압 한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항성해서 지나치게 되면 도리어 나를 이기는 것과 같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세속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비슷해진 것을 실체라고 인식하여 陽을 陰이라고 하니 그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12] 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寒類의 癥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癥은 猶徵也라 然이나 水體柔順이로대 而今反堅硬如地는 亢則害, 承乃制也라. 故로 病濕過極則爲痙은 反兼風化制之也오 風病過極則反燥하야 筋脈勁急은 反兼金化制之也오 病燥過極則煩渴은 反兼火化制之也오 病熱過極而反出五液하며 或爲戰栗惡寒은 反兼水化制之也라(癥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물의 본체는 부드럽고 순하지만 이제 도리어 땅과 같이 단단한 것은 氣가 항성하면 만물을 해치고 이때 아래에 있던 氣가 이어서 제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濕病이 지나치게 심하면 뻣뻣한 痙症이 되는 것은 도리어 風化를 겸하여 木克土하여 제압하는 것이고, 風病이 지나치게 심하면 도리어 건조하게 되어 근맥이 굳세고 당기는 것은 도리어 金化를 겸하여 金克木하여 제압하는 것이고, 燥病이 지나치게 심하면 답답하고 갈증이 생기는 것은 도리어 火化를 겸하여 火克金 하여 제압하는 것이고, 熱病이 지나치게 심하여 도리어 五液이 나오며 혹은 몸을 떨고 惡寒하는 것은 도리어 水化를 겸하여 水克火하여 제압하는 것이다."[13]

이 부분은 내경의 亢害承制論을 응용하여 병리기전을 설명한 부분으로 劉完素의 운기에 대한 깊은 식견 및 독창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내용이다.

(4) 素問病機氣宜保命集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은 다른 책보다 늦게 成書되었다. 이 책은 계통적으로 여러 병의 理, 法, 方, 藥을 소개한 저작으로 病機에 대해서 주로 장부의 성질과 기능으로 立論하였고 전적으로 運氣를 위주로 하지는 않았다. 운기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원문을 생략하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雙解散과 방풍통성산의 辛凉한 처방을 만들어서 중경의 계지탕, 마황탕의 發表하는 약제를 쫓지 아니한 것은 내가 능력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니 오운육기가 변천하고 세대와 사는 사람도 변하며 하늘은 항상 火로써 작용하고 사람은 항상 움직이고 있으니·····그러므로 辛溫大熱之制를 峻用해서는 안된다(傷寒論第六)."[14]

"내경에서 말한 바 金木水火土는 運行하는 법칙이고 寒暑燥濕風火는 臨御하여 작용하는 것이니 (이를 알면) 天道를 알 수가 있고 民氣를 調和할 수 있다. 무릇 모든 병에 걸리는 것은 모두 오운육기 승복성쇠의 법도에 귀속된다(病機論第七)."[15]

"내경에서 삼가 天氣의 마땅함을 살펴서 病機를 잃지 말라고 하였다. 병기는 寒暑燥濕風과 金木水火土니 萬病이 모두 여기에서 생긴다. 따라서 삼가 병기의 근본을 살펴 치료의 요점을 얻은 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六氣五行의 마땅함과 氣味厚薄의 작용과 人身에 병이 드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능히 병을 치료하여 효과를 얻는 자는 드물다(氣宜第八)."[16]

12)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81-82, 2006.
13)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06, 2006.
14)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19, 2006.
15)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23, 2006.
16)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24, 2006.

이상의 내용을 보면 그는 運氣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病因, 病機의 分析, 治療, 用藥 등에 운기이론을 널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5) 三消論

『三消論』은 1卷으로 망실되었었으나 다행히 明나라 때 간행된『儒門事親』속에 收載되어 널리 流傳하게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의 생리 병리와 오운육기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一身之氣는 皆隨四時의 五運六氣興衰하야 而無相反矣라"[17] 라 하여 사람과 운기는 相應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木은 春을 主하고 6氣에서는 風(溫)이 되고 인체에서는 肝이 되며

火는 夏를 主하고 6氣에서는 熱이 되고 인체에서는 心이 되며

土는 長夏를 主하고 6氣에서는 濕이 되고 인체에서는 脾가 되며

金은 秋를 主하고 6氣에서는 燥(淸)가 되고 인체에서는 肺가 되며

水는 冬을 主하고 6氣에서는 寒이 되고 인체에서는 腎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熱은 實證이 되고 虛는 寒證이 되며 熱證은 心에 속하고 寒證은 腎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蓋肺本淸이나 虛則溫하고
心本熱이나 虛則寒하고
肝本溫이나 虛則淸하고
脾本濕이나 虛則燥하고
腎本寒이나 虛則熱이라"[18]고 하였다. 이 이론은 장부마다 특성에 따라 虛實이 다르게 나타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그는 "凡臟腑諸氣는 不必腎水獨當寒하며 心火獨當熱이니 要知每藏每腑는 諸氣和同하야 宣而平之 可也라. 故로 余嘗謂 五常之道는 陰中有陽하고 陽中有陰하며 獨陰不長하고, 獨陽不成이라. 但有一物이면 皆備五行하니 遞相濟養하면 是謂和平이오 交互克伐하면 是謂衰盛이오 變亂失常하면 患害由行이라(장부의 모든 氣는 腎水만이 홀로 寒하고 心火만이 홀로 熱한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매 장부마다는 여러 기운이 함께 조화되어 그것을 펼쳐서 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五常의 道는 陰속에 陽이 있고 陽속에 陰이 있으며 孤陰은 자라지 못하고 孤陽은 이루지 못한다. 단지 하나의 물건이 있다면 모두 五行이 갖추어져 있으니 번갈아가며 서로 구제하고 기르면 이를 和平이라 이르고 서로 상극하고 치게 하면 이를 衰盛이라 이르고 변하고 혼란하여 常道를 잃으면 환난과 재해가 이로부터 행하게 된다)"[19]고 하였다. 이 뜻은 오장과 육부는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하나의 장과 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6) 傷寒直格

이 책은 병을 진찰하고 맥을 진찰하여 外感病 卽 四時의 傷寒을 치료하는 방법을 論述한 책이다. 上中下 三卷으로 되어 있고 自序가 없어 쓰여진 年代는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서두에서 인체의 臟腑와 經絡을 十干, 十二支, 四時, 陰陽, 五運 六氣와 더욱 구체적으로 대응시켰고 이어서 經絡病證, 五運應五藏主病, 六氣爲病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학술 사상의 중요한 내용으로『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언급한 가치가 있는 내용은 그가 正常人의 脈象에 대해서 運氣理論에 의거하여 脈象의 변화를 闡發한 것이다.『素問』「脈要精微論」「平人氣象論」「玉機眞藏論」등의 편에서 天人相應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상인의 맥상이 四時에 따라 春弦, 夏洪(或鉤), 秋毛(或浮, 散), 冬石(或曰營)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張仲景은『金匱要略』에서 역시 이

17)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96, 2006.
18)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274, 2006.
19)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274, 2006.

설을 援用하였다. 그런데 劉完素는 運氣의 六化分治說에 자신의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六步主位平脉說을 제시하였다. 『傷寒直格』에 있는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初之氣는 自大寒日로 至春分이니 厥陰風木之陽이 用事而氣微라·····脈은 乍大乍小하며 乍短乍長하니 時物及風物之象也라.

二之氣는 春分至小滿이니 少陰君火之位로 陽氣淸正하니 正在兩陽合明之間故로 又云陽明主니 脈弦也라.

三之氣는 小滿日至大暑니 少陽相火之位로 陽氣萬物皆盛故로 亦云太陽主니 脈은 滿大而長하니 天氣萬物人脈이 與造化同이라.

四之氣는 大暑日至秋分이니 太陰濕土之位로 天氣尙盛이로대 而夏後陰已用事라. 故로 曰太陰主라 此는 三陰三陽이 與六氣標本之陰陽으로 異矣라 脈은 緩大而長하니 或云緊大而長者는 傳寫之誤也라.

五之氣는 秋分日로 以至小雪이니 陽明燥金之位로 氣衰陰盛故로 又云少陰主也라 脈은 細而微라.

終之氣는 小雪日로 以至大寒이니 太陽寒水之位로 陰極而終盡하며 天氣所收引故로 曰厥陰主니 厥者는 盡也라. 脈은 沈短以敦(敦은 厚也라)이라. 萬物收藏在內하고 寒氣閉塞而膚腠氣液이 不能散越故로 脈沈短而反有力하고 敦厚而如石也라."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劉完素는 運氣의 六氣六化를 내경의 四時陰陽脈象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제시한 六步主位平脈은 四時脈象이 出現하는 정확한 시간대를 밝힌 것으로 운기 이론을 診病과 診脈에 구체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2) 張元素

장원소는 金나라 때의 易州人으로 유완소와 동시대이거나 약간 뒤의 의가이다. 그의 대표저작은 『醫學啓源』이다. 이 책의 卷首에 있는 張吉甫의 서문에서 "暇日에 輯素問五運六氣와 內經治要와 本草藥性하야 名曰 醫學啓源이라하야 以敎門生하고 及有醫方三十卷이 傳于世하다"[21] 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그도 당시에는 盛行하던 오운육기에 대하여 깊이 공부했고 내경과 藥味에 정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후세에 劉純, 汪機 등이 매양 張元素의 "運氣不齊하고 古今異軌하니 古方新病이 不能相也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장원소가 운기를 부정했다는 說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運氣不齊 古今異軌"의 실제 의미는 운기는 古今에 걸쳐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年年不同하며 多變한다는 것이다. 古今의 운기가 不同하여 病症의 出現도 각기 다르므로 치료에 있어 成規를 墨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古方新病不相能(옛날의 처방과 지금의 병이 서로 맞지 않는다)의 결론인 것이다.

장원소는 특별히 藥學方面에서 운기에 대해서 發揮한 바가 있는데 이는 후세 본초학의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病因을 論하면서 "始因氣動而內有所成者" "始因氣動而外有所成者" 및 "不因氣動而病生于內者" "不因氣動而病生于外者"를 四因之病이라[22] 하였다. 여기서 氣動은 五運六氣가 加臨한 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各 時令과 季節의 異常氣候變化를 말한다.

또 五郁之病을 論하면서 "木郁之病 肝酸(木風), 火郁之病 心苦(火暑), 土郁之病 脾甘(土濕), 金郁之病 肺辛(金燥), 水郁之病 腎鹹(水寒) ····五運之政은 猶權衡也니 高者를 抑之하고 下者를 擧之하며 化者를 應之하고 變者를 復之하나니 此生長化收藏之理也니 失常則天地四塞也라"[23] 하였다.

五郁之病에 관해서는 내경에서 이미 상세하게 논하였고 張元素는 五郁의 治法에 대해서 또한

20) 孫洽熙編校.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536-537, 1998.

21) 張元素原著. 任應秋点校. 点校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 1985.

22) 張元素原著. 任應秋点校. 点校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6, 1985.

23) 張元素原著. 任應秋点校. 点校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47-50, 1985.

상세하게 주를 달아서 설명하였다. 木郁條를 살펴보면 “故民病胃脘當心而痛하며 四肢兩脅하며 咽嗌不通하며 飮食不下하고 甚則耳鳴眩轉하며 目不識人하며 善暴僵仆하며 筋骨强直而不用하며 卒倒而無所知也라. 經曰 木鬱則達之라하니 謂吐令其調達也라”[24] 하였다. 肝病은 病機가 울체되니 그 氣를 暢達시켜야 하는 것이 요점이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氣機가 울체되고 橫逆하여 犯胃하면 民病胃脘當心而通하고 上逆하면 耳鳴眩運하고 善暴僵仆 하게 된다. 治法은 氣機를 조화롭게 창달시켜야 하는데 吐法을 써서 울체된 것을 조화롭게 창달시켜야 한다.

六氣主治要法은 『醫學啓源』의 운기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運氣學說에 대해서 비록 推崇을 하였지만, 실제로 干支를 사용하여 某年에 某氣가 勝한다는 것을 推算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論하지 않았다. 다만 一年之中에 季節기후의 不同으로 因하여 治病用藥도 應當 不同해야 한다는 방면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즉 “大寒至春分은 厥陰風木之位니 在上者宜吐며 在下者宜下오 春分至小滿은 少陰君火之位오 淸明之間으로 有陽明之位니 宜以桂枝麻黃湯으로 發汗而已오 小滿至大暑는 少陽相火之位니 宜上淸下凉及溫養오 大暑至秋分은 太陰濕土之位니 宜滲泄이오 秋分至小雪은 陽明燥金之位니 宜以大柴胡湯으로 解治表裡오 小雪至大寒은 太陽寒水之位니 宜破積發汗之藥이라”[25]하였으며, 또 “春防風升麻오 夏黃芩知母白芍이오 秋澤瀉茯苓이오 冬桂 桂枝라”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비록 機械論的이어서 불합리한 點이 있으나 一年四季의 기후가 不同한 것은 자연현상이므로 干支를 사용하여 年歲를 推算하는 방법과는 크게 그 취지를 달리한다.

病機를 論함에 있어서는 臟腑寒熱虛實辨証을 重視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운육기 발병도 중시하여 內經主治備要에서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五運病解, 六氣病解를 두어 이를 부연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완소의 『素問玄機原病式』에 있는 내용들이다. 治法을 論함에 있어서는 六氣方治에서 風暑濕火燥寒의 6氣로 나누어 모두 62首의 처방을 나열하였다.

用藥을 論함에 있어서는 약물의 氣味厚薄, 寒熱陰陽升降 및 臟氣法時補瀉法에 근거하여 처방을 만들고 用藥하였다. 그는 藥類法象에서 약물의 성질과 작용을 五運에서 取法하여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 燥降收, 寒沈藏의 5類로 구분하고 관련된 약재를 나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張元素는 유완소의 『素問玄機原病式』의 내용을 吸收 했을 뿐만 아니라 오운육기의 이론을 더욱 확대시켜 處方하고 用藥하는데 까지 나아간 것이다. 유완소는 오운육기를 六淫의 病機를 밝히는데 전적으로 運用하였고 장원소는 臟腑의 寒熱虛實을 辨證하고 더 나아가 오운육기이론을 가지고 處方用藥을 말하였으니 모두 내경의 운기이론을 잘 활용한 의가라고 말할 수 있다.

3) 張子和

장자화는 風寒暑濕燥火의 6氣가 병을 일으키면 汗吐下三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六門三法의 주창자이다. 그는 六氣爲病과 三法을 결합하여 특색있는 治法을 창안하였다. 그는 『儒門事親』 卷十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26]

“大寒子上初之氣 初之氣爲病 多發咳嗽 風痰風厥.....初之氣病 宜以瓜蒂散吐之, 在下泄之.

春分卯上二之氣 二之氣爲病, 多發風溫, 風熱. 二之氣病, 宜以桂枝麻黃湯, 發汗而已

小滿巳上三之氣 三之氣爲病, 多發熱, 皆傳足經者多矣.....三之氣病, 宜以淸凉, 上溫下養, 不宜用巴豆丸下之.

大暑未上四之氣 四之氣爲病, 多發暑氣, 頭痛, 身熱, 發渴.....四之氣病 宜滲泄, 五苓散之類

秋分酉上五之氣 五之氣爲病, 多發喘息, 嘔逆.....五之氣病, 宜以大, 小柴胡湯, 宜解治表裡之

24) 張元素原著. 任應秋点校. 点校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8, 1985.

25) 張元素原著. 任應秋点校. 点校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50-54, 1985.

26) 徐江雁等主編.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18-119, 2006.

類.

小雪亥上終之氣 終之氣爲病, 多發風痰, 風寒濕痺四肢.....終之氣病, 宜破積發汗之類.

이상의 내용은 主氣의 6步때 多發하는 질병과 治法을 論한 것으로 운기이론과 그의 三法을 잘 결합시키고 있다.

그는 標本運氣歌와 辨十二經水火分治法 등을 詩로 지어 三陰三陽과 十二經脈을 標本에 따라 發病하는 규율을 밝혀 치법을 제시하였고 후세에 널리 알려진 運氣歌도 지었다. 운기가의 내용은 "病如不是當年氣어든 看與何年運氣同이라. 只向某年求治法하면 方知都在至眞中이라(병이 만약 당해년의 운기와 같지 않으면 어떤 해의 운기와 같은 것인가를 살펴볼지어다. 다만 모년이라는 것을 알아 治法을 구한다면 방법이 모두 지진요대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27] 이다.

이것은 歲氣 運氣와 發病의 관련성에 대해서 以年定氣하고 以氣定病한다는 대원칙을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聖濟總錄』이 나온 이래 운기에 대해서 융통성 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개변시켜 운기를 학습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신국면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 뒤에 朱丹溪, 劉純, 汪石山, 張景岳 등의 많은 의가들이 장자화의 이러한 견해를 인용하고 전파하여 의학계에 운기이론을 정확하게 운용하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Ⅲ. 기타 운기전문서적

1) 圖解運氣圖

成無己의『注解傷寒論』이 온전하게 실려 있는『仲景全書』의 首卷에 運氣圖가 함께 실려 있어서 역대로 이를 成無己의 저술로 인정하고 있다.『中國醫籍通考』에서는 "圖解運氣鈐, 成無己注解 一卷 存"이라하고 "元나라 초기의 刻本인『注解傷寒論』에 붙어 있으며 현재 이 版本이 존재하고 있다"[28]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사람 丹波元胤이 편찬한『中國醫籍考』에서는 "[亡名氏 運氣圖解] 一卷 存. 이책은 張卿子仲景全書에 붙어서 판각되어 있다. 또 原板零冊에서도 보이는데 지은 자의 성명을 싣지 않았다"[29]라고 하여 저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成無己醫學全書』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림의 앞에 南北政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이어 마지막에 "加臨五運六氣와 三陰三陽과 標本南北之政과 司天在泉主病을 立成圖局하야 易曉其義하니 又何不達于聖意哉리오(오운육기의 가림, 삼음삼양, 표본남북지정, 사천재천주병을 그림을 그려 쉽게 그 뜻을 알게 하였으니 또 어찌 성인의 뜻을 통달하지 못하겠는가)"[30]라는 짤막한 글이 있고 이어서

南政三陰 6圖, 北政三陰 6圖,

南政陰陽脉交死 4圖, 北政陰陽脉交死 4圖,

北政寸尺脉反死 1圖, 南政寸尺脉反死 1圖,

北政寸尺脉不反 1圖, 南政寸尺脉不反 1圖,

運氣加臨汗差 手經指掌之圖 1圖, 運氣加臨汗差 足經指掌之圖 1圖,

運氣加臨棺墓 手經指掌之圖 1圖, 運氣加臨棺墓 足經指掌之圖 1圖,

運氣加臨脉候寸尺不應之圖 1圖, 六氣主客上下加臨病證之圖 1圖,

三陰三陽의 각각 上下加臨補瀉病證之圖 모두 6圖

그리고 마지막에 五運六氣主病加臨轉移之圖의 총 37圖의 그림이 실려 있다.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南政 北政 三陰의 12圖의 그림을 보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일목요연하지 않고 誤字가 많으며 내용이 틀린 것이 많다. 첫 번째 그림의 南政三陰司天脉의 己丑, 己未年은 南政年에 太陰濕土司天하여 左寸이 不應해야 하는데 兩寸이 不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마지막 그

27) 徐江雁等主編.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63, 2006.

28) 嚴世芸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p.1460, 1993.

2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092, 1983.

30) 張國駿主編. 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3, 2004.

도표 1. 南政三陰司天脉

도표 2. 北政三陰在泉脉

림의 北政三陰在泉脉을 보면 乙卯, 乙酉, 辛卯, 辛酉, 丁卯, 丁酉, 癸卯, 癸酉年은 北政年이고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하여 少陰君火가 在泉하고 兩寸이 不應하니 左右手寸不應은 맞지만 아래에 太陰, 少陰, 厥陰을 모두 기술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陰陽交, 尺寸反과 관련된 12圖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陰陽交는 丑未, 寅申, 辰戌, 巳亥의 8년에만 나타나는데 甲子, 甲午, 乙卯, 乙酉, 辛卯, 辛酉, 丁卯, 丁酉, 癸卯, 癸酉年을 언급하고 있어 역시 틀린 내용이 있다. 즉 언급한 해가 모두 子午卯酉年인데 이 해에는 陰陽交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運氣加臨汗差 2圖와 運氣加臨棺墓 2圖는『傷寒鈐法』에 있는 내용으로 生年과 得病日을 가지고 계산하는 術法의 일종이다. 그리고 運氣加臨脉候寸尺不應之圖는 南政北政에서 寸脉, 尺脉이 不應하는 것을 도표화 해 놓은 것인데 내용이 정확하면서도 일목요연하다.

한 가지만 설명해 보면 아래 중앙에 있는 兩尺不應條를 보면 丙戊庚壬子午는 丙子, 丙午, 戊子, 戊午, 庚子, 庚午, 壬子, 壬午년을 말하고 이해는 北政年으로 少陰이 司天하는데 兩尺이 不應한다. 己卯, 己酉년은 南政년이고 少陰이 司地(在泉)하는데 역시 兩尺이 不應한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六氣主客上下加臨病證之圖는 主氣의 순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빠진 내용이 있는 듯하다.

끝으로 마지막에 있는 五運六氣主病加臨轉移之圖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中心의 圓은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의 十干化五運이다.

다음 원의 諸風掉眩 皆屬于木부터 諸寒收引 皆屬腎水의 43字는 유하간의『素問玄機原病式』에 있는 五運主病이다. 다음 원의 諸暴强直 肢痛軟戾 裡急筋縮 皆屬于風과 제일 밖의 足厥陰風木 乃肝與膽之氣也부터 諸病上下所出水液 ~ 厥逆禁固 皆屬于寒과 밖에 있는 足太陽寒水 乃腎與膀胱之氣也까지도『소문현기원병식』에 있는 六氣爲病의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에 대해 살펴보면 楊力은 이 論圖를 成無己가 주해하였다[31]고 분명히 말하였고 劉杰

31)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p.50,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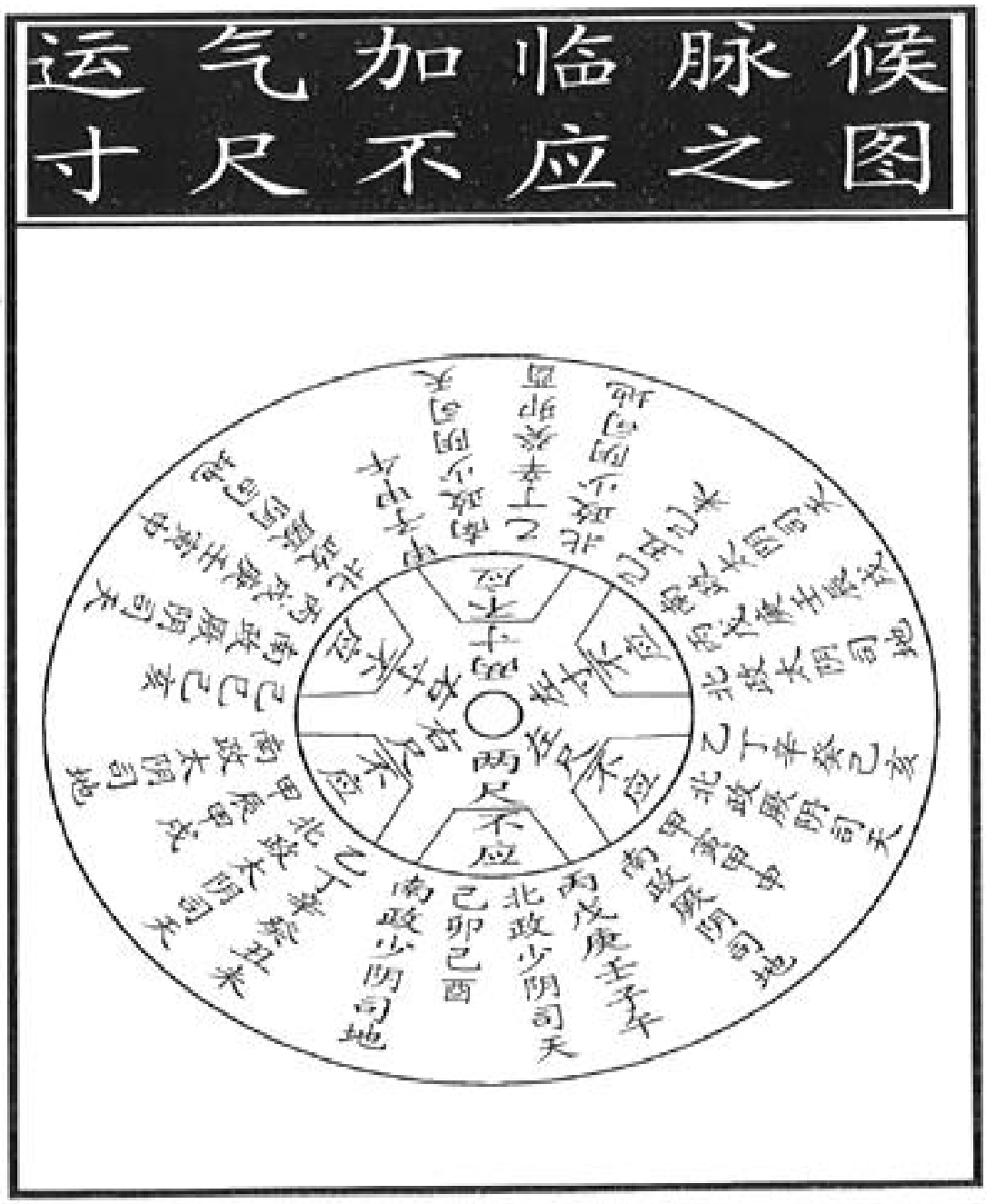

도표 3. 運氣加臨脉候寸尺不應之圖

도 『中國八卦運氣』에서 "成無己는 운기학설을 이용하여 상한의 이론을 연구하는 방법을 창시하였다. 成氏는 傷寒論 운기학파의 창시자라고 말해야 한다. 그는 상한론의 이론적 발전을 推動시켰을 뿐만 아니라 운기학설의 실제 응용을 推動하여 두 개의 학문이 서로 融合하는데 대하여 중

도표 4. 五運六氣主病加臨轉移之圖

요한 공헌을 하였다."[32] 라고 극찬을 하였다. 그 러나 「圖解運氣圖」는 결코 成無己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가 지은『注解傷寒論』에는 南北政, 陰陽交 尺寸反, 汗差, 棺墓 등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汗差, 棺墓 등은 후세에 상한을 術法과 결합한『傷寒鈐法』에서 처음 나온 용어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 圖에 기록된 유하간의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의 내용이다.

성무기가 상한론에 注를 달았던 때는 1144년이고 유하간의『素問玄機原病式』이 간행된 해는 1186년이다. 따라서 이 책이 성무기의 저술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元나라 초기의 판각본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금원시대에「圖解運氣圖」가 완성된 것은 확실한 듯 하며『注解傷寒論』에『圖解運氣鈐』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하였으니 或『傷寒鈐法』의 저자가 그린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2) 기타 金元時代의 운기관련 서적

(1) 戴啓宗의『五運六氣撰要』

대계종의 字는 同父이고 建業人이다. 유학을 공부했고 겸하여 의학에도 정통하였으며 儒學敎授를 역임했다. 일찍이 "의학은 性命之學이다"라고 말하고 내경을 깊이 연구하여『五運六氣撰要』를 지었다[33].

(2) 葛應雷의『醫學會同』

갈응뢰의 자는 震父이고 號는 彦和인데 姑蘇(지금의 소주시)人이다. 처음 科擧시험 준비를 했으나 宋이 망한 뒤 유학을 버리고 의학을 공부했다.『醫學會同』20권을 지었는데 오운육기의 標本을 추산하고 음양승강의 左右를 고찰하여 오장육부의 허실을 判定한 서적이다[34].

(3) 趙道震

조도진의 字는 處仁으로 元代 金華人이다. 의술에 정통하고 의학문헌전적에 대해 정밀하게 연구하였으며 朱震亨에게 배운 뒤에 경지가 더욱 깊어 졌다. 1426년 命을 내려『永樂大典』을 편찬했는데『永樂大典』중의 운기관련 저술은 조도진의 책임 아래 완성된 것이다[35].

(4) 呂復의『運氣圖說』

여복은 字가 元膺이고 元代 鄞(지금의 절강 寧波)人이다. 많은 저술이 있는데 운기관련 서적으로는『運氣圖說』이 있다[36].

(5) 鄧焱의 『運氣新書』

등염의 字는 景文이고 蜀人이다[37]. 吳澄(1249-1333년)은 서문에서 "鄧焱京文은 貫通儒書하고 精專醫技하야 純厚謹審而篤于學하야 演繹七編하고 條分類別하야 目曰 『運氣新書』라 하니 經文注義를 采拾靡遺라. 凡著書欲以明運氣者가 未有能若是賅且悉也라(등염, 경문은 유학에 관통하고 의술에 정통하여 순수하고 도탑고 삼가 살펴서 학문에 독실하여 운기 7편을 연역하고 내용을 분류하여 『운기신서』라고 제목하였으니 경문과 주의 뜻을 모두 채록하여 남김이 없었다. 무릇 책을 지어 운기를 밝힌 것이 이 책처럼 구비되고 완전한 것이 없다)[38] 라고 하였다.

(6) 曹大本의 『運氣考定』

조대본의 字는 彦禮이고 鄆城人이다. 吳澄은 序文에서 "鄆城曹君 大本彦禮는 又嗜邵子書하고 而尤究意于『素問』『密語』運氣之說하야 裒集『大論』三卷 『密語』七卷하니 亦勤矣로다.(운성의 조대본 언례는 또 소강절의 책을 좋아하고 더욱 『소문』『현주밀어』의 운기학설을 깊이 연구하여 『대론』을 3권으로 요약하고『현주밀어』를 7권으로 요약하여 (『運氣考定』을 지었으니) 또한 부지런하도다)[39]라고 하였다.

---

32) 劉杰. 中國八卦運氣. 靑島, 靑島出版社, p.22, 1999.
33)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71, 1991.
34) 甄志亞主編. 傅維康副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69-270, 1991.
35) 甄志亞主編. 傅維康副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72, 1991.
36) 甄志亞主編. 傅維康副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73, 1991.
37)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79, 1991.
38)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p.1463, 1993.
39)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p.1463, 1993.

위의 6권의 서적 중 『永樂大典』에 있는 운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세에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Ⅳ. 結 論

금원시대 운기학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완소의 모든 저서에는 운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실려 있으나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內經運氣要旨論』은 亡失되었다가 최근에 발견된 책으로 유완소가 짓고 그의 제자 馬宗素가 보충을 하였다. 이 책은 운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술한 책으로 북송 때 나온 유온서의 『소문입식운기론오』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상세하다.

2. 유완소의 저서인 『素問玄機原病式』은 病因과 病機를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귀납시킨 운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서적으로 특히 亢害承制論을 통해 많은 病機를 설명하고 있다.

3. 유완소의 저서인 『三消論』에는 肺本淸이나 虛則溫하고 心本熱이나 虛則寒하고 肝本溫이나 虛則淸하고 脾本濕이나 虛則燥하고 腎本寒이나 虛則熱이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

4. 유완소의 저서인 『傷寒直格』에는 主氣의 六步에 따라 初之氣 때는 脈이 乍大乍小하며 乍短乍長하고 二之氣 때는 脈弦하고 三之氣 때는 脈이 洪大而長하고 四之氣 때는 脈이 緩大而長하고 五之氣때는 脈이 細而微하고 終之氣 때는 脈이 沈短而反有力하며 敦厚而如石하다고 하여 운기이론을 診脈에 활용하였다.

5. 장원소도 病因, 病機, 治法, 用藥 등에 운기이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유완소가 운기를 六淫의 病機를 밝히는데 주로 活用한데 반해 장원소는 운기이론을 處方과 用藥에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6. 張子和는 主氣의 6步에 따라 多發하는 질병과 治法을 論하였고 標本運氣歌, 辨十二經水火分治法, 運氣歌 등을 지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7. 成無己가 1144년 傷寒論에 注를 달고 함께 저작한 것으로 알려진 37圖의 「圖解運氣圖」는 내용이 정확치 않은 곳이 있고, 후세에 나온 이론으로 추측되는 汗差, 棺墓 등의 術家들이 쓰던 용어들이 나오며, 마지막 그림인 五運六氣主病加臨轉移之圖의 내용이 1186년에 간행된 『素問玄機原病式』에 있는 내용임으로 결코 成無己의 저작이 될 수 없다. 이 그림의 저작자는 『傷寒鈐法』의 저자이거나 그 이후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8. 이외에 망실된 금원시대의 운기 관련 서적으로는 戴啓宗의 『五運六氣撰要』, 呂復의 『運氣圖說』, 鄧焱의 『運氣新書』, 曹大本의 『運氣考定』 등이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601500001).

參考文獻

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092, 1983.
2.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pp.1460-1461, 1993.
3.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84, 96, 106, 119, 193, 195, 274, pp.81-82, 123-124, 2006.
4. 孫洽熙編校.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536-537, 1998.
5. 張元素原著. 任應秋点校. 点校醫學啓源. 北

京, 人民衛生出版社, p.1, pp.46-54, 1985.
6. 徐江雁等主編.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63, pp.118-119, 2006.
7. 張國駿主編. 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13, 2004.
8.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p.50, 1995.
9. 劉杰. 中國八卦運氣. 青島, 青島出版社, p.22, 1999.
10.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71, 1991.
11. 甄志亞主編. 傅維康副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69-270, 272-273, 1991.